

자동차

Car

기아차 '스타마케팅' 눈에 띄네

◇나달 앞세운 '테니스 마케팅'=25일 기아차에 따르면 클레이코트 60연승의 신화를 달성한 테니스 천재 라달이 최근 기아차와 계약을 맺고 '기아차 테니스 홍보대사'가 됐다.



자동차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씨

나달은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TV 및 인쇄매체 등에서 기아차의 광고모델로 활동할 예정이다. 모터쇼 및 각종 기아차 관련 행사에 참석해 기아차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자동차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씨

기아자동차가 세계적 테니스 스타인 라파엘 나달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가 하면 가수 싸이를 통한 세라토 홍보에 나서는 등 '스타 마케팅'에 한창이다. 특히 기아차는 최근 독일출신의 유명 자동차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의 영입을 통한 '디자인 독립' 선언 등 공격 마케팅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자동차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나달(테니스선수)-홍보대사 위촉 브랜드 알리기

싸이(가수)-뉴세라토 CF활용 인지도 높혀

피터 슈라이어(디자이너)-CDO(총괄부사장) 영입



가수 싸이를 이용한 뉴세라토 광고물

오피러스·카니발 '테니스마케팅'

스페인 출신의 나달은 16살이던 지난 2001년 프로에 데뷔한 뒤 10대에만 무려 10개 대회를 석권한 최초의 선수로 기록되며 세계 테니스계에 무서운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라달은 2005년·2006년 프랑스오픈 대회 우승과 함께 클레이코트 6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테니스 천재'에 등극했다.

기아차는 현재 세계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인 호주오픈과 세계적 대회인 데이비스컵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박정문 기아차 해외영업본부장은 나달과의 계약 당시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플레이를 구사하는 라파엘 나달 선수야말로 기아차가 추구하는 '즐거움 활력을 주는'(Exciting & Enabling)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달도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인 기아차 광

뉴세라토 CF퍼포먼스 열어

고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더욱 좋은 플레이로 기아 브랜드를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싸이 마케팅' 극대화=기아차는 뉴세라토의 광고 모델인 가수 싸이를 활용한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아차는 본격 휴가철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3일

까지 전국 도심지에서 가수 싸이의 TV CF를 패러디한 '뉴세라토 CF 퍼포먼스'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싸이 썸머 스탠드 2006콘서트'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서는 뉴세라토 전차와 함께 뉴세라토 1대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마케팅을 개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아차는 행사장 입구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싸이가 출연한 뉴세라토 CF 등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디자인을 현대차와 차별화

'스타 마케팅'을 벌였다. 또 8월초 실시한 뉴세라토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100명을 선정, 총 200명을 싸이 콘서트에 초대하기도 했다.

◇유명 자동차디자이너 CDO로 영입=기아차는 세계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에서 디자인 담당 총괄 책임자를 지낸 독일 출신의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 총괄 부사장(CDO·Chief Design Officer)으로 영입했다.

이는 기아차가 신기술 개발 등 품질 경쟁력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공유되며, 디자인 부문에서는 현대차와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고유의 정체성 구축 및 세계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중 한명으로 꼽히는 슈라이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라달의 기아차 스포티지 광고

어 부사장은 아우디 TT, A6 등의 디자인을 이끌었고, 독일연방디자인대상 4회 수상, 시카고 굿디자인상 2회 수상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이에 따

라 슈라이어 부사장은 오는 9월말 파리모터쇼에서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 핵심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숫자로 풀어보는 자동차 생산과정

자동차가 한대 생산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정과 테스트가 필수다. 2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자동차 1대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테스트 등 크게 6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 한대의 생산과정을 숫자로 풀어본다.

◇신차 개발 기간 2년. 비용은 1천억원=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도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통상 1개의 신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나 1천

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 특히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개발에는 평균 30~40개월이 걸린다.

신차를 만드는 과정의 첫 단계는 디자인이다. 하나의 신차 디자인을 위해서는 3만장 이상의 스케치와 드로잉 작업을 거치며,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진흙 모델 작업에는 1천500kg의 점토가 투입된다.

◇프레스 공정에 필요한 철판은 1대당 1t=신차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그 첫번째 공정은

자동차의 외형을 만드는 프레스다. 보통 1대의 차를 제작하기 위해 프레스 공정에 투입되는 철판의 무게는 1t에 달한다.

또한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프레스 공장에서 월간 약 5천200t의 철판 코일을 사용해 80만장의 패널을 생산한다.

◇페인팅은 3회에 걸쳐 11시간 소요=차체가 만들어지면 옷을 입혀줘야 한다. 도장 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로, 이는 세척작업을 시작으로 총 3번의 페인팅 작업으로 나뉜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11시간이며, 62대의 로봇이 투입된다.

소나타의 경우 차체 전체를 도장하는데 약 13ℓ의 페인트가 소비된다. 또 자동차 차체는 각각의 세부 공정을 거칠 때마다 섭씨 150~160도의 대형 전기 오븐에서 1시간 정도 건조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완성차 테스트에 최대 150명 투입=완성차는 테스트 라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총 120~150명의 작업자들이 1대의 차를 검사하는데 투입된다. 이들은 부품이 제대로 장착됐는지 여부, 브레이크 성능검사, 타이어 진동검사, 주행검사, 내·외장 검사 등을 실시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개발 기간 2년 ... 비용은 1천억원

프레스 공정에 필요한 철판 대당 1t·완성차 테스트 최대 150명 투입

■ 숫자로 풀어보는 자동차 생산과정

자동차가 한대 생산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정과 테스트가 필수다. 2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자동차 1대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테스트 등 크게 6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 한대의 생산과정을 숫자로 풀어본다.

◇신차 개발 기간 2년. 비용은 1천억원=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도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통상 1개의 신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나 1천

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 특히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개발에는 평균 30~40개월이 걸린다.

신차를 만드는 과정의 첫 단계는 디자인이다. 하나의 신차 디자인을 위해서는 3만장 이상의 스케치와 드로잉 작업을 거치며,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진흙 모델 작업에는 1천500kg의 점토가 투입된다.

◇프레스 공정에 필요한 철판은 1대당 1t=신차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그 첫번째 공정은

자동차의 외형을 만드는 프레스다. 보통 1대의 차를 제작하기 위해 프레스 공정에 투입되는 철판의 무게는 1t에 달한다.

또한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프레스 공장에서 월간 약 5천200t의 철판 코일을 사용해 80만장의 패널을 생산한다.

◇페인팅은 3회에 걸쳐 11시간 소요=차체가 만들어지면 옷을 입혀줘야 한다. 도장 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로, 이는 세척작업을 시작으로 총 3번의 페인팅 작업으로 나뉜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11시간이며, 62대의 로봇이 투입된다.

소나타의 경우 차체 전체를 도장하는데 약 13ℓ의 페인트가 소비된다. 또 자동차 차체는 각각의 세부 공정을 거칠 때마다 섭씨 150~160도의 대형 전기 오븐에서 1시간 정도 건조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완성차 테스트에 최대 150명 투입=완성차는 테스트 라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총 120~150명의 작업자들이 1대의 차를 검사하는데 투입된다. 이들은 부품이 제대로 장착됐는지 여부, 브레이크 성능검사, 타이어 진동검사, 주행검사, 내·외장 검사 등을 실시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억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

신기술 개발 기간 2년, 비용은 1천억원

060-700-3658

진미령 아무진 꽃게장!

떡야 본 사람들 만드사 또 갖는다는 그 맛!

40만세프 판매기념, 최초구성에 7마리 추가

090-440-8080